

번호: PO-EP-066					
제 목	다중이용시설 근무자의 생물테러 인식도 조사				
저 자 및 소 속	김정숙1), 김영택1), 박일훈1), 박용순1), 김중희1), 박지은1), 이상윤1), 서순려1), 천병철2) 1)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, 2)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			
분 야	역 학 [전염병 역학]	발 표 자		발 표 형 식	포스터
<p>목적: 런던에서의 연쇄 폭탄 테러 발생과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가 금년 11월 국내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. APEC 대비 생물테러에 대한 서울 지역 다중이용시설 점검 중 근무자를 대상으로 생물테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향후 생물테러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였다.</p> <p>방법: 본 조사는 서울 지역의 교통시설, 문화·체육시설, 쇼핑 및 숙박시설에 근무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생물테러에 대한 인식 및 대처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. 자료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였으며 설문 내용은 대상자의 생물테러에 대한 인식수준 6문항, 관련 행위의 실태 1문항, 교육과 훈련 내용 및 방법 3문항, 우리나라의 생물테러 대응수준에 대한 인식 1문항, 일반적 특성 3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. 배포 회수된 설문지 141부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1부를 제외한 140부 설문지를 자료로 SAS 8.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.</p> <p>결과: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10명(78.6%), 여자 30명(21.4%)이었으며, 연령은 30~39세가 56명(40.0%)으로 가장 많았고, 50~59세는 16명(11.4%)으로 가장 적었다. 근무기관은 교통시설과 판매시설에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33.6%, 32.9%로 가장 높았고, 숙박시설 22.1%, 문화·체육시설 11.4% 순이었다.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중 마스크, 정기 간행물, 정부 홍보 책자 등을 통하여 생물테러 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 경험은 76.4%이었다. 우리나라에서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(5점 척도)에 대한 평가는 '중간이다'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. 또한 우리나라에서 병원체(백색가루)를 넣은 우편물을 이용한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5.0%이었다. 우리나라에서 생물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, 생물테러의 목적은 '대규모 인명살상 및 국가 인프라 파괴효과 달성'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.8%로 가장 높았다. '불특정 다수'를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5.7%로 높게 나타났다. '군인집단'이나 '특정단체'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5%로 낮게 나타났다. 백색가루 등 생물테러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'알고 있다'고 응답한 경우는 106명(76.3%)으로 나타났다. 『2004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지침』에서 백색가루 등 생물테러 의심사례 발생 시 신고는 '경찰(112)' 또는 '소방(119)'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데, 본 조사 대상자의 43.4%가 '경찰(112)' 또는 '소방(119)'이라고 응답하였다.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28명(91.4%)으로 대상자 대부분이 생물테러 관련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.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생물테러 대비 교육의 내용으로 우선시 되는 항목은 '생물테러 발생 시 신고 방법'과 '생물테러 전염병에 걸렸을 때 신속하게 의료기관 방문, 치료법' 순으로 나타났다. 교육 및 훈련 방법은 'TV, 라디오 등을 이용한 마스크', '생물테러에 대한 국민 홍보 자료 및 포스터 작성 및 배부', '직장을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비 교육 실시' 순으로 나타났다.</p> <p>결론: 연구 대상자의 76.4%가 마스크, 정기 간행물 등을 통하여 생물테러 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자료를 접한 경험이 있었고, 전체 대상자의 91.4%가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.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이 생물테러 징후를 발견 시 즉시 신고,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생물테러 대비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</p>					